

일반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의 대인표상 비교 연구

서 창 원

양 병 창[†]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범죄 청소년과 일반 학생의 부, 모, 교사 및 친구에 대한 표상이 비교되었다. 학생 292명(남, 148; 여, 144),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 337명(남, 274; 여, 63)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각각의 인물에 대한 표상의 강도에서 범죄 청소년의 경우 친구표상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표상이 가장 낮았으며, 친구표상과 부·모 표상의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청소년의 경우 친구표상과 부·모 표상의 괴리가 범죄 청소년의 괴리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각각의 인물표상에 대한 청소년과 범죄청소년의 차이 분석에서, 청소년은 부·모 표상에서 범죄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범죄 청소년은 친구표상에서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 남녀 각각 동성 부모에 표상값이 이성 부모에 대한 표상값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범죄 청소년의 경우 각각 이성 부모에 대한 표상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대인표상의 양상이 청소년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 대인표상, 인물표상, 청소년 비행

[†] 교신저자 : 양병창,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E-mail : xiphiaz@cnu.ac.kr

최근의 청소년 범죄 추세에 대한 분석에(김지선, 2007)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절대건수나 범죄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형법 범죄의 경우 절대건수와 범죄율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형법 범죄에서 청소년 구성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에서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하고, 재범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 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 수준에서의 비용, 범죄 피해자의 피해비용, 범죄 대응비용 등 추정 불가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막대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박철현, 박정선, 송태정, 2007). 특히 청소년 범죄는 그 범죄로 인해 개인의 미래의 성장 잠재성을 손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대한 문제이며,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환경적, 개인적인 변인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바(김준경, 2008; 한기혜, 박영신, 2004),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학생)과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 아버지, 교사 및 친구에 대한 대인표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인표상은 자신이 경험한 인물에 대해 구성하여 기억 속에 간직된 심리적 표상으로(Pavio, 1986), 일반적인 적응 및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인표상에서 특수성이 시사되고 있다(Kiesler, 1996; Wyer & Gordon, 1984). Kiesler(1996)는 자기 및 타인표상은 과거에 경험한 대인관계의 결과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대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세계와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기표상과 아울러 부, 모, 친구 등 중요한 타인에 표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경험이 표상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인간의 삶에서 타자와의 관계가 핵심적인 영역이며, 타인과의 관계 유형과 타인에 대해 형성한 내면적 표상은 개인의 심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한다(Cashdan, 1988).

Kernberg(1975)와 Kohut(1971)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내적 표상의 형성은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 경험의 내적 대응물로서, 그 근간은 어머니-아동 관계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 내적 표상은 아동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판형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며, Klein(1932)은 인생 초기의 어머니-아동 관계가 이후의 삶에서 대인관계의 원형을 구성하며, 아동의 첫 번째이며 가장 근본적인 대인관계 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은 아동의 자기 표상과 내면적 세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일차적인 어머니 상은 성장 후 타인과의 관계 양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Beck & Freeman(1990)은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부적응적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건강한 자기 및 타인 표상의 변화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부적응적 문제의 해결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타인표상도 청소년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인표상의 양상과 범죄와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모, 친구와의 관계 경험과 범죄, 그리고 대인표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애착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서 대인표상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계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식 등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비행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보면, Dancien과 Robert(2004)는 부모-자녀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비행을 범할 가능성과 상관성이 있으며, 이길자(1999)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양육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이 증가하며,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취 지향적으로 양육하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도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일탈행동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의해, 대학생은 부모의 성취적 태도 결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부모의 적대적 태도나 부모와의 갈등이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기혜, 박영신, 2004). Yablonsky와 Haskell(1989)도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 즉 가족 구성원들의 내적인 관계가 구조적 측면에 비해 비행에서 더 중요한 원인이며, 가족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ernkovich와 Giordano(1987)는 청소년이 부모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될수록 그들의

기대에 강하게 결속되고, 따라서 좀 더 큰 체제의 규범 준수에 강하게 결속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경험을 통해서 부모와 강한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규범을 존중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 더해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기능함으로서(송성자, 1996), 또래 집단과의 관계 경험 역시 대인관계와 청소년의 적응에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 후에 교우들과의 대인관계가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주된 생활공간이 학교와 또래 관계로 옮겨짐으로서 또래들과의 인간관계가 그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평가가 표상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윤진(1991)은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행동기준과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 발달의 중요한 매개자로서 기능함으로서 비행 행동의 유발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확인해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청소년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 애착과 비행 사이의 중단적 연구에 의하면(Kashani, Jones, Bumby, & Thomas, 1999; Wasserman 등, 2003), 아동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에 비행 또래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또래를 통해서 충족

시키며, 애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부류의 친구와 또래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비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단 비행 또래들의 네트워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 비행의 빈도도 높아지고, 범죄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McQuillan, Berdahl, & Cahpple, 2005).

애착과 범죄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서, 김준경(2008)도 비행 또래 집단과의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의 위험행위와 비행이 증가하며,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낮을수록 비행전체가 높아지며, 부모와 소외된 관계를 가질 때 위험 행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einberg & Silberg(1986)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감소될 때 동년배 집단의 영향이 커지고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Canter(1982)도 애착은 비행에 대항하는 통제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결속이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은 비행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송호창과 오윤자(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비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동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에 비행 또래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Kashani, Jones, Bumby, & Thomas, 1999; Wasserman 등, 2003).

이러한 부모와 또래의 범죄 발생과 관련한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을 하지 않도록 내면적 통제 역할과, 비행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통제 이론 개발한 Hirschi(1969)에 의하면, 개인은 다른 사람

들과 애착관계를 가질 때 그들의 견해에 민감해지며, 그들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전제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일탈 및 비행성향을 갖고 태어나지만, 개인이 사회와 유대가 강하면 비행성향을 통제하여 비행을 하지 않으며, 유대가 약하면 비행 성향을 통제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의 사회화에서 가정과 학교, 친구와의 유대를 강조하였는데, 청소년이 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가정과 학교, 친구와의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 구조 속에서 불평등, 소외, 긴장을 느끼고 사회적 유대가 약화된 청소년들은 비행친구와 더 어울리고 이들은 비행 친구와의 유대를 통해 비행 가치를 학습하게 되어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Hirschi(1969)는 비행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력을 무엇보다 중시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 친구 등 중요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인지적 요소인 대인표상도 애착대상이 역할모델 혹은 규범으로서 기능하듯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즉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유능하고 우호적인 사회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아동의 자신감과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아동의 부정적인 도식이나 표상에 근거해 나타난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기존의 부정적 도식에 집착하고 변화를 어렵게 한다. 긍정적인 표상은 보상적인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을 갖도록 강화하지만, 부정적인 표상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비우호적인 반응을 유발시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는 더욱 공고해지며, 부적응을 초래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공동체에 의해 수용되고 적합한 적응적 행동 방식과 준거를 갖게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청소년기에 어머니, 아버지, 주변의 또래에 대한 대인 표상이 행동 선택의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행동의 시점에서 행동의 준거로서 어떤 대상의 표상이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상적인 적응과 비행 및 범죄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 아버지, 교사 및 친구에 대한 표상을 비교하여, 대인표상의 양상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인표상이라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변인을 확인하여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비행 및 범죄 청소년을 교육 및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총 629명으로 이중 학생군은 292명, 범죄청소년은 337명이었다.

학생군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 남·여학생 292명(남, 148명; 여,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

문 방법은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한 이후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비행군은 대전 보호관찰소, 대전 대덕 소년원, 청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교육생 등 보호처분 대상자 청소년 337명(남, 274명; 여, 63명)이었다. 공범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77.2%인 260명은 공범이 있었으며, 22.8%인 77명은 단독범이었다. 비행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은 13.4%인 45명이었으며, 폭행 등의 폭력사범은 54.0%인 182명,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등의 기타로 분류된 응답자는 32.6%인 110명이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 모, 교사, 친구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는 도구는 개인에 대한 통합적 인상을 조직화하는 차원을 조사하고자 했던 Osgood, Suci 및 Tannenbaum(1967)의 의미판별법을 사용하였다. 의미판별법은 포괄적이며 귀중한 심리측정 방법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일반화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의미판별법은 어떤 개념에 대한 양극적 형용사의 짝이 주어지고 양극의 형용사 사이에 7점 척도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인물에 대한 표상의 측정 도구로 의미판별법의 세 차원 즉, 평가차원(좋은-나쁜, 친절한-불친절한, 유쾌한-불쾌한), 능력차원(강인한-허약한, 유능한-무능한, 똑똑한-어리석은), 활동차원(능동적-수동적, 뜨거운-차가운, 진취적-보수적)에서 각각 세 가지씩 총 9개의 형용사 짝을 사용하였다.

9개의 형용사 짝에 대한 각각의 인물에 대

한 측정 도구의 문항간 일치도는 어머니에 대한 내적표상 질문의 Cronbach's $\alpha = .884$, 아버지에 대한 내적표상 질문의 Cronbach's $\alpha = .905$, 교사에 대한 내적표상 질문의 Cronbach's $\alpha = .941$, 또래 친구에 대한 내적표상 질문의 Cronbach's $\alpha = .909$ 로서 모든 대상에 대한 측정 도구의 문항은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일원변량분석과 MANOVA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교사 및 친구표상의 강도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을 개체내 요인(측정치)로 하고 범죄군과 학생군을 개체간 요

인으로 하여 MANOVA하였으며, 각각 대인 표상의 하위요소에서 집단(학생군/범죄군)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를 학생남자, 학생여자, 범죄남자, 범죄여자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표상의 하위요소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이들 4개 범주에서 각 표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표상값을 개체 내 요인(측정치)로 하고 범주를 개체 간 요인으로 하여 MANOVA를 사용하였다.

결 과

표 1에서 표 4까지의 결과는 모, 부, 교사

표 1. 모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집단별(범죄군/학생군) 변량분석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모평가표상	범죄군	337	17.3412	3.95276	1.073
	학생군	292	17.6370	3.07049	
	Total	629	17.4785	3.57071	
모능력표상	범죄군	337	15.6231	3.85339	6.347*
	학생군	292	16.3562	3.37515	
	Total	629	15.9634	3.65471	
모활동표상	범죄군	337	14.8843	3.81042	21.331***
	학생군	292	16.2089	3.31105	
	Total	629	15.4992	3.64492	
모표상전체	범죄군	337	47.8487	10.48884	9.362**
	학생군	292	50.2021	8.50774	
	Total	629	48.9412	9.68409	

* p<.05 ** p<.01 *** p<.000

및 친구에 대한 표상과 하위요소에 대해 범죄군과 학생군으로 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표 1의 모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집단별 변량분석 결과, 모능력표상과 모활동표상 및 모표상 전체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능력 표상과 모활동 표상에서 학생군이 범죄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각각, $M=16.35$ 와 $M=15.62$, $M=16.20$ 과 $M=14.88$), 모표상 전체값에서도 학생군($M=50.20$)이 범죄군($M=47.84$)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2의 부표상 하위요인들에 대한 집단별 변량분석 결과, 부능력 표상, 부활동 표상 및 부표상 전체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능력 표상과 부활동 표상에서, 학생군이 범죄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각각, $M=17.88$ 과 $M=16.36$, $M=15.65$ 와 $M=14.70$), 부표상 전체값에서도 학생군($M=50.26$)은 범죄

군($M=47.79$)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3의 교사표상 하위요인들에 대한 집단별 변량분석 결과, 교사평가 표상, 교사활동표상 및 교사표상 전체값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사능력표상에서 범죄군($M=16.17$)이 학생군($M=15.25$)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4의 친구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집단별 변량분석 결과, 친구평가표상과 친구표상 전체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평가 표상에서 범죄군($M=19.68$)이 학생군($M=16.5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친구표상 전체값에서 범죄군($M=53.22$)이 학생군($M=51.60$)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5와 표 6의 결과는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을 개체내 요인(측정치)로 하고 범죄군과 학생군을 개체간 요인으로 하여

표 2. 부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집단별(범죄군/학생군) 변량분석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부평가표상	범죄군	336	16.7560	4.22713	.009
	학생군	292	16.7260	3.97936	
	Total	628	16.7420	4.11056	
부능력표상	범죄군	337	16.3620	3.92255	27.586***
	학생군	292	17.8870	3.26350	
	Total	629	17.0700	3.70765	
부활동표상	범죄군	337	14.7062	4.21516	8.507**
	학생군	292	15.6541	3.88409	
	Total	629	15.1463	4.08908	
부표상전체	범죄군	336	47.7946	10.99210	8.750**
	학생군	292	50.2671	9.78307	
	Total	628	48.9443	10.51186	

* $p<.05$ ** $p<.01$ *** $p<.000$

표 3. 교사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집단별(범죄군/학생군) 변량분석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교사평가표상	범죄군	337	15.3027	4.77067	1.901
	학생군	292	14.7705	4.89253	
	Total	629	15.0556	4.83107	
교사능력표상	범죄군	337	16.1780	4.03604	7.934**
	학생군	292	15.2500	4.21695	
	Total	629	15.7472	4.14368	
교사활동표상	범죄군	337	14.2433	4.36437	.177
	학생군	292	14.0925	4.61229	
	Total	629	14.1733	4.47820	
교사표상전체	범죄군	337	45.7240	11.58012	2.774
	학생군	292	44.1130	12.66856	
	Total	629	44.9762	12.11454	

** p<.01

표 4. 친구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집단별(범죄군/학생군) 변량분석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친구평가표상	범죄군	337	19.6825	2.33951	26.960***
	학생군	292	18.5616	3.06397	
	Total	629	19.1622	2.75527	
친구능력표상	범죄군	337	16.7507	3.55947	3.136
	학생군	292	16.2226	3.91864	
	Total	629	16.5056	3.73681	
친구활동표상	범죄군	337	16.7953	3.56023	.011
	학생군	292	16.8253	3.60988	
	Total	629	16.8092	3.58054	
친구표상전체	범죄군	337	53.2285	7.92138	5.609*
	학생군	292	51.6096	9.22262	
	Total	629	52.4769	8.58128	

* p<.05 *** p<.000

표 5. 집단에 의한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 MANOVA 기술통계량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대응별비교
모표상전체(a)	범죄군	47.8036	10.47172	336	
	학생군	50.2021	8.50774	292	
	합계	48.9188	9.67551	628	
부표상전체(b)	범죄군	47.7946	10.99210	336	
	학생군	50.2671	9.78307	292	a>c;
	합계	48.9443	10.51186	628	b>c;
교사표상전체(c)	범죄군	45.7530	11.58518	336	d>a;
	학생군	44.1130	12.66856	292	d>b;
	합계	44.9904	12.11889	628	d>c
친구표상전체(d)	범죄군	53.2262	7.93308	336	
	학생군	51.6096	9.22262	292	
	합계	52.4745	8.58791	628	

표 6. 집단에 의한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 MANOVA 개체내 효과 검정

측도:MEASURE_1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요인1	구형성 가정	17578.157	3	5859.386	78.346.000
	Greenhouse-Geisser	17578.157	2.767	6353.382	78.346.000
	Huynh-Feldt	17578.157	2.785	6312.424	78.346.000
	하한값	17578.157	1.000	17578.157	78.346.000
요인1 * 집단	구형성 가정	2580.469	3	860.156	11.501.000
	Greenhouse-Geisser	2580.469	2.767	932.675	11.501.000
	Huynh-Feldt	2580.469	2.785	926.662	11.501.000
	하한값	2580.469	1.000	2580.469	11.501.001
오차 (요인1)	구형성 가정	140452.367	1878	74.788	
	Greenhouse-Geisser	140452.367	1731.979	81.094	
	Huynh-Feldt	140452.367	1743.217	80.571	
	하한값	140452.367	626.000	224.365	

MANOVA한 결과이다. 공분산 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분석에서 Box의 $M=128.075$ 에 대한 $F=12.719$, $p<.000$ 이었다.

표 5와 표 6의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을 개체내 요인(측정치)로 하고 성별을 개체간 요인으로 하여 MANOVA한 결과,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의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측정치와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요인 1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학생군의 모표상과 부표상의 강도는 (각각 $M=50.20$, $M=50.26$) 범죄군의 모표상과 부표상 강도보다 (각각 $M=47.80$, $M=47.79$) 높았지만, 교사표상 강도와 친구표상의 강도에서는 범죄군의 강도가(각각 $M=45.75$, $M=53.22$) 학생군의 강도(각각 $M=44.11$, $M=51.60$)보다 높았다.

표 7에서 표 10의 결과는 부, 모, 교사 및 친구 표상과 그 하위요인들을 범죄 남/여, 학

표 7. 모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변량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모평가표상	범죄남(a)	274	17.4964	3.66974	1.300	
	범죄여(b)	63	16.6667	4.98061		
	학생남(c)	148	17.5878	3.17929		
	학생여(d)	144	17.6875	2.96476		
	합계	629	17.4785	3.57071		
모능력표상	범죄남(a)	274	15.7591	3.73975	3.150*	
	범죄여(b)	63	15.0317	4.29541		
	학생남(c)	148	16.1419	3.48175		d<b
	학생여(d)	144	16.5764	3.25937		
	합계	629	15.9634	3.65471		
모활동표상	범죄남(a)	274	15.0730	3.65977	8.491***	
	범죄여(b)	63	14.0635	4.34360		c>a;
	학생남(c)	148	16.2162	3.41971		c>b;
	학생여(d)	144	16.2014	3.20746		d>a;
	합계	629	15.4992	3.64492		d>b
모표상진체	범죄남(a)	274	48.3285	9.90032	4.420**	
	범죄여(b)	63	45.7619	12.61683		
	학생남(c)	148	49.9459	8.82928		c>b;
	학생여(d)	144	50.4653	8.18656		d>b
	합계	629	48.9412	9.68409		

* $p<.05$ ** $p<.01$ *** $p<.000$

생남/여로 구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7의 모표상 하위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변량분석 결과, 모능력표상, 모활동표상 및 모표상 전체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능력 표상의 경우, 학생여자가(M=16.57) 범죄여자(M=15.03)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모활동 표상에서는 학생남자가(M=16.21) 범죄남자(M=15.75)와 범죄여자(M=15.03)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생여자도(M=16.20) 범죄남자

와 범죄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모표상 전체값에서는 학생남자(M=49.94)와 학생여자(M=50.46)가 범죄여자(M=45.76)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8의 부표상과 하위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변량분석 결과, 부능력 표상, 부활동 표상 및 부표상 전체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능력 표상에서, 학생남자(M=18.27)는 범죄남자(M=16.42)와 범죄여자(M=16.09)보다 유의하

표 8. 부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변량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부평가표상	범죄남(a)	273	16.7802	4.17398	.077	
	범죄여(b)	63	16.6508	4.48351		
	학생남(c)	148	16.8243	3.88739		
	학생여(d)	144	16.6250	4.08284		
	합계	628	16.7420	4.11056		
부능력표상	범죄남(a)	274	16.4234	3.63181	10479***	
	범죄여(b)	63	16.0952	5.02161		c>a;
	학생남(c)	148	18.2703	3.05192		c>b;
	학생여(d)	144	17.4931	3.43368		d>a;
	합계	629	17.0700	3.70765		d>b
부활동표상	범죄남(a)	274	14.8650	4.17300	5.142**	
	범죄여(b)	63	14.0159	4.36072		
	학생남(c)	148	16.1554	3.64162		c>a;
	학생여(d)	144	15.1389	4.06694		c>b
	합계	629	15.1463	4.08908		
부표상전체	범죄남(a)	273	48.0330	10.55565	4.064**	
	범죄여(b)	63	46.7619	12.75541		
	학생남(c)	148	51.2500	9.02595		c>a;
	학생여(d)	144	49.2569	10.43980		c>b
	합계	628	48.9443	10.51186		

* p<.05 ** p<.01 *** p<.000

게 높았으며, 학생여자(M=17.49)도 범죄남자와 범죄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부활동 표상에서 학생남자(M=16.15)가 범죄남자(M=14.86)와 범죄여자(M=14.01)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부표상 전체값에서는 학생남자(M=51.25)가 범죄남자(M=48.03)와 범죄여자(M=46.76)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9의 교사표상 하위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변량분석 결과, 교사평가, 교사능력, 교사활동

및 교사표상 전체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평가 표상에서 범죄남자가(M=15.60) 범죄여자(M=14.0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사능력 표상에서 범죄남자(M=16.35)가 학생남자(M=15.12)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사활동 표상에서는 범죄남자(M=14.52)가 범죄여자(M=13.0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교사표상 전체값에서 범죄남자가(M=46.48) 범죄여자(M=42.41)보다 유의하게 높아, 교사 관련 표상에

표 9. 교사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변량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교사평가표상	범죄남(a)	274	15.6022	4.63528	3.251*	a>b
	범죄여(b)	63	14.0000	5.15877		
	학생남(c)	148	14.3649	5.10588		
	학생여(d)	144	15.1875	4.64392		
	합계	629	15.0556	4.83107		
교사능력표상	범죄남(a)	274	16.3577	3.91154	3.676*	a>c
	범죄여(b)	63	15.3968	4.48848		
	학생남(c)	148	15.1216	4.34233		
	학생여(d)	144	15.3819	4.09502		
	합계	629	15.7472	4.14368		
교사활동표상	범죄남(a)	274	14.5255	4.31554	3.073*	a>b
	범죄여(b)	63	13.0159	4.39755		
	학생남(c)	148	13.6351	4.80950		
	학생여(d)	144	14.5625	4.36726		
	합계	629	14.1733	4.47820		
교사표상전체	범죄남(a)	274	46.4854	11.27389	3.565*	a>b
	범죄여(b)	63	42.4127	12.38448		
	학생남(c)	148	43.1216	13.16608		
	학생여(d)	144	45.1319	12.09707		
	합계	629	44.9762	12.11454		

* p<.05

표 10. 친구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대비 변량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친구평가표상	범죄남(a)	274	19.7117	2.24850	10.943***	
	범죄여(b)	63	19.5556	2.71660		a>c;
	학생남(c)	148	18.1959	3.30462		a>d;
	학생여(d)	144	18.9375	2.75635		b>c
	합계	629	19.1622	2.75527		
친구능력표상	범죄남(a)	274	16.6131	3.54200	1.713	
	범죄여(b)	63	17.3492	3.60179		
	학생남(c)	148	16.2432	4.20013		
	학생여(d)	144	16.2014	3.62119		
	합계	629	16.5056	3.73681		
친구활동표상	범죄남(a)	274	16.6679	3.52842	1.417	
	범죄여(b)	63	17.3492	3.67274		
	학생남(c)	148	16.5068	3.82526		
	학생여(d)	144	17.1528	3.35607		
	합계	629	16.8092	3.58054		
친구표상전체	범죄남(a)	274	52.9927	7.69948	2.848*	
	범죄여(b)	63	54.2540	8.81525		
	학생남(c)	148	50.9459	9.81376		b>c
	학생여(d)	144	52.2917	8.55331		
	합계	629	52.4769	8.58128		

* p<.05 *** p<.000

서 범죄 남자의 값이 가장 높았다.

표 10의 친구표상 하위 요인들에 대한 범주별 대비분석 결과, 친구 평가표상과 친구표상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평가 표상에서 범죄남자가(M=19.71) 학생남자(M= 18.19)와 학생여자(M=18.93)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범죄여자도(M=19.55) 학생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친구표상 전체값에서 범죄여자

(M=54.25)가 학생남자(M=50.9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11과 표 12의 결과는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을 개체내 요인(측정치)로 하고 집단범주를 개체간 요인으로 한 MANOVA 결과이다. 공분산 행렬에 대한 Box의 Box의 M=192.809에 대한 F=6.328, p<.000 이었다.

표 11. 집단 범주에 의한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친구표상 MANOVA 기술통계량

	CL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대응별비교
모표상전체(a)	범죄남	48.2747	9.87838	273	
	범죄여	45.7619	12.61683	63	
	학생남	49.9459	8.82928	148	
	학생여	50.4653	8.18656	144	
	합계	48.9188	9.67551	628	
부표상전체(b)	범죄남	48.0330	10.55565	273	
	범죄여	46.7619	12.75541	63	
	학생남	51.2500	9.02595	148	
	학생여	49.2569	10.43980	144	a>c;
	합계	48.9443	10.51186	628	b>c;
교사표상전체(c)	범죄남	46.5238	11.27662	273	d>a;
	범죄여	42.4127	12.38448	63	d>b;
	학생남	43.1216	13.16608	148	d>c
	학생여	45.1319	12.09707	144	
	합계	44.9904	12.11889	628	
친구표상전체(d)	범죄남	52.9890	7.71338	273	
	범죄여	54.2540	8.81525	63	
	학생남	50.9459	9.81376	148	
	학생여	52.2917	8.55331	144	
	합계	52.4745	8.58791	628	

표 11과 표 12의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을 개체내 요인(측정치)로 하고 집단범주를 개체간 요인으로 하여 MANOVA한 결과, 측정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측정치와 범주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측정치와 범주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범죄남자의 경우, 친구표상의 값이 가장 높았고(M=52.98), 모표상(M=48.27), 부표상(M=48.03), 교사표상(M=46.52)의 양상을 보였다.

범죄여자의 경우, 친구표상(M=54.25)이 가장 높았고, 부표상(M=46.76), 모표상(M=45.76), 교사표상(M=42.41)의 양상을 보였다. 학생남자의 경우 부표상(M=51.25)이 가장 높았고, 친구표상(M=50.94), 모표상(M=49.94), 교사표상(M=43.12)의 양상을 나타냈다. 학생여자의 경우, 친구표상(M=52.29), 모표상(M=50.46), 부표상(M=49.25), 교사표상(M=45.13)의 양상을 보였다.

표 12. 집단범주에 의한 모표상, 부표상, 교사표상 및 친구표상의 MANOVA 개체-내 효과 검정

		측도:MEASURE_1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요인1	구형성 가정	16715.431	3	5571.810	75.045	.000
	Greenhouse-Geisser	16715.431	2.767	6040.078	75.045	.000
	Huynh-Feldt	16715.431	2.794	5981.873	75.045	.000
	하한값	16715.431	1.000	16715.431	75.045	.000
요인1 * 범주	구형성 가정	4042.998	9	449.222	6.050	.000
	Greenhouse-Geisser	4042.998	8.302	486.976	6.050	.000
	Huynh-Feldt	4042.998	8.383	482.283	6.050	.000
	하한값	4042.998	3.000	1347.666	6.050	.000
오차(요인1)	구형성 가정	138989.838	1872	74.247		
	Greenhouse-Geisser	138989.838	1726.870	80.487		
	Huynh-Feldt	138989.838	1743.673	79.711		
	하한값	138989.838	624.000	222.740		

범죄 남과 여는 각각 동성부모에 대한 표상 값보다 이성부모에 대한 표상값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학생남과 여는 동성부모에 대한 표상값이 이성부모에 대한 표상값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표상의 값에서 범죄남과 여가 학생남과 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여, 범죄군과 학생군 사이에 비교될 만한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인표상과 범죄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범죄 청소년과 일반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 교사 및 친구표상을 비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학생 남녀 292명,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남녀 337명을 대

상으로 인물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는 9개의 양극 형용사 짝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부·모 표상에서 모능력, 모활동 표상 및 전체값에서 학생군이 범죄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들 요인에서 학생남자와 학생여자가 각각 범죄남자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여 학생군은 남자 여자 모두 범죄군의 남자 여자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음을 보였으며, 학생여자가 어머니 관련 표상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범죄여자의 어머니 표상이 가장 낮았다. 부 능력, 활동, 부표상 전체값에서도 학생군이 범죄군보다 높았으며, 학생남자와 학생여자가 범죄남자와 범죄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여, 아버지 관련 표상에서도 학생남자와 여자가 범죄남자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남

자의 아버지 관련 표상이 가장 높았고, 범죄여자의 아버지 표상이 가장 낮았다.

교사관련 표상에서는 대체로 범죄군에서 높았으며, 특히, 범죄남자가 학생여자와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생남자 및 범죄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여, 범죄남자의 교사관련 표상이 가장 높았고, 범죄여자가 가장 낮았다.

친구관련 표상에서, 범죄군이 학생군에 비해서 높았으며, 범죄남자와 범죄여자 둘 다 학생남자와 학생여자보다 높아 범죄군이 학생군에 비해 친구관련 표상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여자의 경우, 가장 낮은 모표상, 가장 낮은 부표상, 가장 낮은 교사 표상 가장 높은 친구 표상을 보여, 부모-친구 표상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각각의 인물에 대한 표상 강도의 차이에 대한 MANOVA 결과, 학생군과 범죄군 둘 다 친구표상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모표상과 부표상은 서로 유의한 차이 없이 다음을 이었으며, 교사표상의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범죄군의 경우 친구표상의 강도와 모, 부 표상 강도 사이의 차이가 학생군의 그 차이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남자와 범죄여자는 각각 동성부모에 대한 표상값보다 이성부모에 대한 표상값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친구표상의 값에서 범죄남자와 범죄여자가 학생남자와 학생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여, 범죄군과 학생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군의 경우, 친구표상의 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 표상의 값보다 현저하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친구표상 값을 보인 범죄군과는 달리, 부모 표상 값과 친구표상의 값의 차이가 적었으며, 특히 학생남자의 경우 부표상 값이 친구표상의 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범죄 남녀와는 달리 모두 동성 부모에 대한 표상 값이 이성 부모에 대한 표상 값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학생군이든 범죄군이든 청소년에게 친구집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범죄군의 경우 부모-친구 표상의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청소년에게 중요한 인물에 대한 표상 양상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발생은 단순히 친구 표상의 강도가 아니라 부·모표상과 친구표상 사이의 괴리가 가능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친구 표상 사이의 괴리가 클 경우 그만큼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청소년의 배타적으로 강하게 구성된 친구 표상은, 또래에 대한 이와 같은 강한 긍정적 표상을 토대로 강한 유대를 구성하게 되고, 또래 네트워크에 속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차별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다. 또한 행동 결정에서 약한 부모 표상이 의미하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유대로 발생한 부모-자녀 관계의 간극을 파고들어, 부모의 통제보다는 또래 친구들의 통제에 놓일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범죄나 비행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행 또래들의 네트워크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 또래 집단이 행동 기준과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범죄의 강도가 더욱 더 심화되고,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 발생의 한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남성의 부모-친구표상의 괴리보다 더 심한 괴리를 보이는 범죄여성의 표상 양상은 최근에 전체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경향은 주춤하고 있지만,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범

죄 비율의 증가와 폭력화 경향(김지선, 2007)과, 미국에서 과거 10년 동안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남자 청소년의 범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Chesney & Okamoto, 2001)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학생군의 경우 부모-친구표상 값이 비슷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성 부모에 대한 표상이 이성 부모에 대한 표상보다 더 강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공동체에서 수용되는 바람직한 개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평가 및 활동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동일시되어 부모와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부모가 역할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성역할과 관련된 역할 모델을 포함하여, 부모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 예방에 있어서 긍정적인 대인표상,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표상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할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되어 연구된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식 등 부모와의 관계 경험, 애착 등의 변인에 더해, 중요인물에 대한 표상의 양상도 청소년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변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해 주었다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인물표상은 그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합하여 기억에 저장하여 지니고 있는 인지적 성분으로,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은 청소년의 인지체계에 부모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관계 경험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 혹은

요구에 더 민감해짐으로서 규범 준수와 강하게 결속된다. 이는 Hirschi(1969)의 통제이론이 시사하는 바대로,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강할 경우, 규범 위반에 대항하는 통제기제도 기능하며, 비행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유리시킬 수 있는 힘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친구에 대한 표상만이 배타적으로 강할 경우, 그 또래의 속성에 따라 범죄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압력도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단 비행을 저지를 경우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미 대부분의 범죄 청소년들은 가정의 붕괴 혹은 결손의 경험으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표상의 구성을 방해받고 있으며,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는 또래들에 대한 표상 구성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표상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Beck & Freeman(1990)의 지적처럼 건강한 자기 및 타인 표상의 변화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부적응적 문제의 해결에 핵심적인 과제임으로, 비행 및 범죄 청소년들이 특정한 내용의 표상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과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체험의 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표상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신과 김의철(2003)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구조적 결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 결손의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기혜와 박영신(2004)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결손을 감소시킴으로서 일탈예방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계속적인 범죄 혹은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결손 경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여 부모 표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보호처분 대상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부모의 기능이 기관의 유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한 표상 강도가 다른 대상들보다 현저 낮다는 점도 교정 시설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서 결손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하여 그 관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대응 인물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범죄 집단의 부모-친구 표상 사이의 불균형적 괴리를 학생 집단의 경우처럼 부모-친구 표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변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행동기준을 갖게 하여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아현 (2000). 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상이 대인 지각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경 (2008).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241-255.
- 김지선 (2007). 청소년 범죄의 발생 추세와 특성-1966-2005, 형사정책 19(2), 55-86.
- 나유미 (2001).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또래 관계간의 연계: 인지 표상모델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22(1), 83-96.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 자녀 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 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위의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철현, 박정선, 송태정 (2007).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 5대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331-358.
- 송성자 (1996).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유지숙 (2009). 청소년기의 중요 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과 대인관계 성향 및 공감능력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 (1991). 동년배 간의 우정관계,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 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511-532.
- 이길자 (1999). 부모 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농촌 지역 초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혜, 박영신 (2004).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아동교육* 13(1), 95-10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nter, R. (1982). Family correlate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20, 149-167.
- Cashdan, S. (1988). *Object relations therap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Cernkovich, S. & Giordano, P.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Chesney, Lind, M. & Okamoto, S.(2001). Gender matters: Patterns in girl's delinquency and gender responsive programming.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Practice*, 1(1), 28
- Daneen P. D., & Robert, C. (2004). Aggressive, rej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parison of their friendship.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75-104.
- Roberts, A. ed. (2004). *Juvenile Justice Source Book: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NY: Oxford Univ.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Holmbeck, G. N., & Leake, C. (1999).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563-581.
- Kashani, J., Jones, M., Bumbby, K. & Thomas, L.(1999). Youth violence: Psychosocial risk factors, treatment, prevention,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7(4), 200-211.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 McClanahan, G., & Holmbeck, G. N.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 construct validity study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 Assessment*, 59, 468-485.
- McQuillan, J., Berdahl, T. & Chapple, C. (2005). Gender, social bond, and delinquency: A Comparison of boy's and girls' model, Bureau of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Pavio, A. (1986). *Mental representations*.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teinberg, L., & Silberger,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Wasserman, G., Keenan, K., Tremblay, R., Coie, J., Herrenkohl, T., Loeber, R. & Petechuk, D.

- (200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child delinquency. *Bulletin: Child Delinquency Seri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Wyer, R. S., & Gordon, S. E. (1984).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ocial information.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2. pp.73-150)*. Hillsdale, NJ: Erlbaum.
- Yablonsky, L., & Haskell, M. (1989).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 Youniss, J., & Krtterlinus, R. (1987). Communication and connectedness in mother-and father-adolescent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265-280.
- 1 차원고접수 : 2010. 2. 8.
심사통과접수 : 2010. 3. 9.
최종원고접수 : 2010. 3. 22.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presentation of General Teenagers and Delinquent Juveniles

Chang Won Seo

Byeong Chang Yang

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parent, teacher and friend representation of general teenagers with that of delinquent juveniles. 292 students (148 male students and 144 female students) and 337 delinquent juveniles (274 males and 63 femal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interviewed. As for delinquent juveniles, the friend representation was the highest, while the teacher representation was the lowest. The gap between the friend representation and the parent representation of delinquent juveniles was very significant. In contrast, the gap between the friend representation and the parent representation of general teenagers was less significant than that of delinquent juveniles.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personal representation between general teenagers and delinquent juveniles showed that the parent representation of general teenag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elinquent juveniles, and the friend representation of delinquent juvenil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general teenagers. General teenag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epresentation on homosexual parents than heterosexual parents, while delinquent juvenil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epresentation on heterosexual parents than homosexual parents. The results imply interpersonal representation is related to the crimes of teenagers.

Key words : interpersonal representation, personal representation, delinquent juveniles